

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한 생존 지침서

4차 혁명 표류기

민연기 지음



통계학자 탈리시아 윌리엄스는 두 번째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었다. 의사는 예정일보다 늦은 출산은 유산 확률이 두 배나 높다고 유산분만을 권했다. 평생 통계학자로 살아온 탈리시아는 질문을 바꿔 일반적인 출산에서 유산될 확률을 물었다. 의사는 천 명 중 한명, 다시 말해 0.1%라고 답했다. 탈리시아는 자신의 경우가 0.2%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출산 예정일은 생리주기인 28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탈리시아의 주기는 일정하지 않아 지난 6년간 아침마다 첫 체온을 측정해왔다. 오랫동안 수집해온 데이터는 명확한 생리주기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탈리시아는 정확한 출산 예정일을 의사보다 잘 알았다.

이처럼 통계학자인 여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해 출산에 적용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통계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또한 아무리 생플링이 커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빨라졌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분석이 가능하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빅(big)을 붙여 빅데이터(big data)라고 한다.

앞의 예는 GE 가전에서 주방가전 개발 등을 담당했던 민연기의 책 '스마트한 시대를 생존하다: 4차혁명 표류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과의 관계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나누는 공유경제, 세상을 수집하는 사물인터넷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미래의 과학자와 공학자가 꼭 알아야 할 3D 프린팅'을 소개하기도 했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디지털이라는 광망대해를 스마트하게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기술들이 일목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 관심사로 대두된다. <성심미디어 제공>

연하게 정리돼 있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스마트폰, 공유경제, 3D 프린터와 스타트업, 드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VR과 AR, 생명공학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기술의 바탕에는 스마트폰이 자리한다. 고전적인 의미의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상품 개발, 판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앱이 판매되는 앱스토어를 통해 애플은 수익의 30%, 개발자는 70%를 가져간다. 모두가 반할 앱을 개발하면 재벌이 될 수 있다. 물론 노력의 30%는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가진 애플에게로 간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날밤을 새워 탄생시킨 앱은 모든 전자제품을 흡수한다.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휴대용 게임기, 카메라 심지어 호모사피엔스가 너무나 사랑했던 텔레비전까지! 어떤 이는 스마트폰의 매끈한 터치스크린에 값비싼 접시 이미지를 띄워 놓고 그릇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공유, 렌탈, 구독의 중심에도 스마트폰이 자리한다. 물론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부터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성적인 소비는 상품의 소유가 아닌 경험의 소유로, 렌탈이 미래의 소비 형태를 바꿀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스마트폰은 물건과 경험을 빌리는 연결을 매개한다. 구독경제는 과거의 신문과 우유의 배달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구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하다. 한 예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한두 달 꽃을 배달받을 수 있다. 맥주와 안주 배달 뿐 아니라 깨끗이 다림질한 셔츠도 배달이 가능하다.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다. 어제 일어났던 기술은 곧 미래의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대처했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렵잖이나마 예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운명하게 바꿔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성심미디어·1만5000원>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들여다보면서 허탈한 감정에 휩쓸리는 젊은이들에 새로운 영감을 전한다. 미국의 스타강연자 제이크 두시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자문하며 답을 찾기 위해 스포츠스타, 배우, 작가, 지식인 등을 인터뷰했고, 성공한 삶을 이끄는 에너지와 태도,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그 효용성을 증명한다.



<연금술사·1만8000원>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2018년 '안녕, 우주'로 뉴베리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두번째로 뉴베리상을 수상한 저자 에린 앤트라다 켈리의 작품. 1986년 1월을 배경으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사는 버드, 피치, 캐시 세 남매의 한 달간 이야기를 담았다. 각자 자신만의 궤도에 맞춰 움직이던 세 남매에게 1986년 1월 켈린 저호 발사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 <밝은 미래·1만4800원>



▲눈물은 그러다가 흐른다=황성희 시인의 네번째 시집. '어머니'라 일컬어진 시세계의 기원이자 근원, 그 막강한 두려움에 집중하는 데서 한 발 나팔 '나 자신'을 시세계의 전면으로 내세운 게 특징이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한 몸매에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질문과 해답을 모두 품은 존재가 느끼는 모순과 긴장감이 새로운 떨림과 울림을 선사한다.

<문학동네·1만원>
▲운동은 이렇게=미국의 진보적 정치이론가 마이클 알저가 시민운동을 위해 이슈의 정의부터 연합 형성, 조직 운영과 모금 방법, 리더십의 역할, 파벌 문제의 해법 등 효과적인 사회운동을 펼치는 25가지 노하우를 제안한다. 지적 오만, 반정치적 태도, 경제적 궁핍, 미디어의 유혹, 내부 갈등 등 활동가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을 다루고 응원의 말을 전한다. <후마니타스·1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아빠, 휠체어 밀어 주세요=엄마와 단둘이 사는 지체장애를 가진 11살 소녀 마야는 아빠와 따로 사는 것과 휠체어를 타는 것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속상하다. 책은 서로를 잘 모르던 아빠와 딸이 여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진심을 깨달아가는 이야기다.

우는 햇살, 고요하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락사락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등을 묘사한 잔잔한 그림과 글은 평화롭고 아늑한 도서관의 풍경과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노란돼지·1만5000원>

<한울림스페셜·1만3000원>

▲나는 도서관입니다=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명혜권 작가가 런던의 한 도서관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도서관을 주인공으로 쓴 책이다. 출출하게 채워진 서가 위 책들, 그 책들이 품기는 쿼터폰 종이 냄새, 구석구석 사이로 파스하게 드리

▲슈퍼능력 새우=작은 몸집에 비해 용감하고 씩씩한 주인공 새우 뽕이의 이야기. 뽕이는 고래들의 싸움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려 새우들과 마을을 구해 평화의 왕이 된다. 비록 작고 힘은 약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지혜를 익혀 '슈퍼능력 새우'가 되어 힘센 고래들과 정정당당히 맞서서 평화를 지키는 뽕이의 이야기는 힘보다 강한 지혜'라는 주제를 통해 아이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꿈터·1만1000원>

'한방' 노린 젊은 직장인들의 롤러코스터 가상화폐 투자 이야기

달까지 가자

장류진 지음



"월급을 돈 대신 카드 포인트로 받는다고? 이런 일이 가능해?"

소설을 읽기 전 이미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사실을 작가 인터뷰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느꼈던 그 황당함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장류진이 2019년 발표한 단편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 속 주인공 안나에게는 이 황당한 상황이 '현실'이다. 안나는 사직서를 쓰는 대신 '거북이일'이라는 아이디어로 판교 IT 기업 중교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우동마켓'을 이용해 포인트를 '현금화' 시켜나간다.

당시 연재중이던 창비 사이트를 마비시키며 화제가 됐던 이 작품은 환장문학, 판교 리얼리즘, 극사실주의

스타트업 호러 등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은영·김혜진·정세랑 등 최근 몇년 사이 작품을 찾아 읽게 만드는 흥미로운 소설가들의 등장이 반가운데, 그 중에서도 지난 2019년 발간된 장류진의 첫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에 실린 8편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의 즐거움과 유쾌함, 그 안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의 여운은 꽤 오래 갔다. '잘 살겠습니다'에 등장하는 눈치없는 직장동료 '빛나인'이나, 애써 장만한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쓰지만 그 미묘한 역할관계에 허둥대는 '도윤의 손길' 속 '나'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첫 소설집으로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킨 장류진의 첫 장편소설 '달까지 가자'가 나왔다. '직장인 공감백배 하이퍼리얼리즘 소설'이라는 홍보문구처럼, 소설은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읽으며 무릎을 칠 만한 대목들이 등장한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회사는 아이스크림 '초코밤'으로 유명한 마론제과. 주인공은 브랜드식 스텝팀에 근무하는 근무연수 3년 11개월의 화학 '다혜', 회계팀의 '지

송', 구매팀의 '은상언니'다. 정식 공채가 아닌 세 사람은 '비공채 출신 3인'이라는 의미에 인사 평가 때마다 '무난' 등급을 받는다는 의미를 더해 'B03 무난이들'이라는 이름의 카톡방을 열고 시시콜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돼 우정을 쌓아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감정 변화가 별로 없던 은상언니가 '뭔가 달라 보이고, 기분이 심하게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그녀에게서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에 투자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은상은 두 사람에게 이더리움 투자를 권하고, 이사 준비를 하며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다혜는 적금을 깨고 가상화폐를 시작한다. 지송 역시 다혜의 가상 지갑 속 숫자가 1억원을 찍자 투자에 합류하고 이후 세사람의 롤러코스터 같은 투자와 삶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날 것 그대로의 사회를 유머러스하게 포착해 내는 그의 이야기의 뼈대들다보면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 <창비·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